

사이비 '과학서적'의 범람

송상용 한림대 교수·본지 편집위원

과학을 정의하는 것은 마치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온 나도 선뜻 과학은 이런 것이라고 규정할 자신이 없다. 다만 서구과학만이 과학이라는 좁은 정의는 곤란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의사들은 한의학이 경험적인 수준에 머문다고 해서 과학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복수의 과학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하고 독단적인 태도다. 심령과학도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과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명한 과학자들이 점성술은 과학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다. 나도 비슷한 의견이다. 점성술을 사이비과학이라

하면,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의 과학의 탈을 쓴 악의적인 종교운동도 있다.

며칠전 큰 서점에 가 보았다. 과학코너를 찾으니 여전히 말이 아니다. 제대로 된 과학책은 얼마 되지 않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엉뚱한 책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건강과 컴퓨터에 관한 책은 풍성하지만 순수과학 서가는 엉망이다. 「현상학과 개별과학」은 철학으로 옮겨가고 일러 주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손을 댈 수가 없다. 상당수가 교과서이고 과학과는 거리가 멀거나 과학을 오히려 해치는 신비사상 또는 사이비과학책이 적지 않게 끼여 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건국 이래 정부는 과학입국을 외쳐왔다. 최근에는 90년대까지 과학을 세계10위권에 올려 놓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 풍토조성 사업은 '전국민의 과학화'니 뭐니 해서 구호만 요란했을 뿐,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과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학대국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한다.

과학저술인들이 모여 '과학저술과 출판'이라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부의 미온적인 지원이 성토되었고, 과학자와 출판인들이 반성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과학도서진흥기금의 창설 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나와야 하며, 과학저술인들과 출판계가 힘을 합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일 때다. 건강이나 컴퓨터도 넓은 의미의 과학에 들어간다. 正常科學 해설서가 크게 늘어나면 사이비과학 책 몇권 섞여 있다 해서 우려할 일은 아닐 것이다.

출판저널

통권 제42호/1989년 6월 5일 발행

발행인—鄭鐵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주간—李勝羽
편집차장—康鐵柱
기자—吳愛里 金芝媛 車昌龍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포토디렉터—朱明德
사진—全惠敬

업무·광고—梁秉杓 崔允源
李義天 金依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화사전산사자

출판저널—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康賢斗 | 康泓彬 | 權德周 | 權寧瑛 |
| 權五聖 | 金炳翼 | 金聖坤 | 金容雲 |
| 金禹昌 | 金仁會 | 金治洙 | 盧命完 |
| 潘星完 | 邊衡尹 | 徐洸善 | 徐淵昊 |
| 成完慶 | 宋相庸 | 愼鍾廈 | 安秉永 |
| 安輝濤 | 吳光洙 | 劉載天 | 陸明心 |
| 尹錫範 | 李康洙 | 李康淑 | 李璟薰 |
| 李光周 | 李萬烈 | 李明賢 | 李相日 |
| 李元靛 | 李重漢 | 李姬載 | 張會翼 |
| 鄭用琢 | 鄭雲暎 | 鄭元植 | 鄭鎮弘 |
| 鄭丙圭 | 曹大鉉 | 趙玉羅 | 陳德奎 |
| 車河淳 | 崔成眞 | 崔元植 | 崔載賢 |
| 崔鐘庫 | 韓相震 | 韓勝憲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실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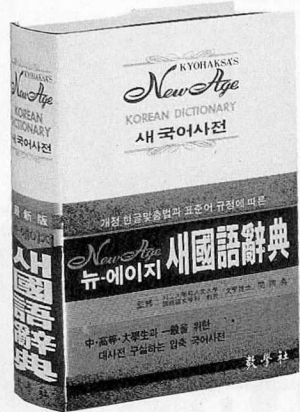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6월2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저널 내)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44호(7월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敎學社에서 펴낸 「뉴 에이지 새國語辭典」(정가 9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1

국내 최초의 번역시집은 1921년 廣益書館이 발행한 「懊惱의 舞蹈」이다. 이 시집의 번역자는 누구인가?

1. 육당 최남선
2. 소월 김정식

3. 안서 김억

문제2

우리나라 최초의 詩同人誌는 무엇인가? 1921년 5월24일에 처음 간행됐으며, 창간호의 제호 밑에 '자유시의 선구'라는 부제를 달았다. 황석우, 변영로, 노자영, 박종화, 박영희 등이 중요한 동인이다.

1. 「폐허」
2. 「백조」
3. 「장미촌」

문제3

「眞言集」은 조선조 선조 2년(1569)에 설은(雪崩)에 의해 교정간행됐다. 이 책은 범어·한문 및 한글로 대훈(對訓)한 책으로도 유명한다. 여기에서 「眞言」 즉 '참된 말씀'이란 누구의 말씀을 가리키나?

1. 부처의 말씀
2. 공자의 말씀
3. 맹자의 말씀

문제4

현대인의 선과 악의 분열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이중인격적인 인간을 가리킬 때

이 작품의 제목이 자주 인용되곤 한다. 영국작가 R.L.B. 스티븐슨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괴기소설의 제목은 무엇인가?

1. 「투명인간」
2.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3. 「프랑켄슈타인」

출제·홍윤기

제40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모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0호(5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173통, 이중 정답은 136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 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② 「杜詩諺解」

조선 선종 때 柳允謙 등이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들을 모아 한글로 풀이해 펴낸 책이 바로 「두시언해」이다. 「靑丘永言」은 영조4년 김천택

이 역대 시조를 모아 편찬한 책이며, 「海東歌謠」는 영조 39년 김수장이 엮은 시조집이다.

2. ③ 「문장」

「문장」은 일제 말기인 1939년 2월 창간돼, 「인문평론」과 더불어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 속에서도 문인들을 배출하는 등 우리말 문학의 계승에 크게 기여했던 문학종합지이다.

3. ③ 시라노 드 베르즈락 (1619~1655)

4. ③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단 한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으나, 플라톤의 저서 「향연」 대화편을 통해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당첨자

- 윤점미(서울시 노원구 창3동 45-64 9/5)
- 이현주(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북면리 210)
- 이훈(목포시 북교동 114-4 3/6 이재용씨택)
- 최희숙(대전시 중구 용두1동 8/4)
- 윤성희(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1 227-23 36/6)